

문화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는 이소룡의 '용쟁호투'



호쾌한 액션이 인상적인 이소룡의 '용쟁호투',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풍경이 아름다운 '아라비아의 로렌스', 사이먼과 가펩클의 음악으로 유명한 '졸업'... 1960~70년대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고전 영화의 정수 10편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23~11월 1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와이드 스크린 영화 특별전'을 갖는다.

지역 유일의 단관 극장으로 대형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극장에서는 지난 8월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추억의 영화 '미션'을 상영, 중장년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상영작중 대표작을 소개한다.

▲용쟁호투

세상을 떠난지 3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소룡의 대표작이다. '당산대행', '정무문'에 이어 나온 영화로 이소룡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거울로 만들어진 방에서 이소룡이 펼치는 무술은 한편의 무용처럼 아름답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3년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 수상작이다. 1918년 아라비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영

국인 장교 로렌스는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터키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아랍 부족을 이끌고 터키군을 무찌

광주극장 23일부터 '와이드 스크린 영화 특별전'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 고전 영화 정수 10편 상영

르스 데 공을 세워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명성을 얻는다.

거장 데이비드 린 감독 작품으로 광활한 사막과 대자연의 풍경이 인상적이며 피터 오를과 오마 샤리프도 이 영화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졸업

더스틴 호프먼과 캐더린 로스가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특히 로빈슨 부인 역

을 맡은 앤 벅크로프트의 연기가 많은 화제를 모았다.

벤자민은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로빈슨 부인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 거리다 그녀의 딸 엘레인을 소개받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엄마와 벤자민의 불륜을 알게된 엘레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Sound of silence' 'Mrs. Robinson' 등

사이먼과 가펩클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석양의 무법자-옛날 옛적 서부에서 서부 영화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대표작이다. '석양의 무법자'는 늘 시가를 문 채 말토를 두르고 서부를 방랑하는 블런디 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리반 클리프가 주연을 맡은 서부영화의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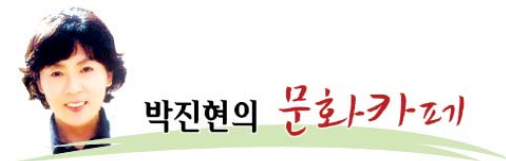
'옛날 옛적 서부에서'는 헨리폰다와 찰스 브론슨이 주연을 맡았다.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

거장 스텐리 큐브릭 감독의 대표작으로 SF의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도구의 발명에서부터 우주여행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역사를 그린 영화로 영화의 첫부분에 삽입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인상적인 영화음악으로도 꼽힌다.

그밖에 조지 거슈윈의 음악이 흐르는 우디 알렌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팬타탄', 구로자와 아카라야의 '요점보',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달콤한 인생', 니콜라 스테이의 '실뿔보다 큰' 등이 상영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드

예술가들이 사는 법

김복환, 김동하, 하영술, 이강하, 서정봉...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난 화가들이라는 점이다. 이씨처럼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작가들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안타까움을 주었다. 30~50대인 이들은 저마다 개성적인 작업으로 광주 미술계의 기대를 모았다. 왕성한 창작열로 점차 광주화단을 이끌어 갈 주인공들이었다는 점에서 지역 미술인들의 슬픔은 컸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는 건 이들의 죽음이 가난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화가'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각박한 현실과 맞서왔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한 젊은 작가는 수입이 거의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궁핍한 생활은 부인과의 별거로 이어졌고 홀로 작업실에서 외롭게 작업하던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결혼도 미룬 채 창작에 전념했던 40대 김동하씨도 녹록치 않은 현실과 싸우다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

지역의 많은 작가들은 '예술가'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상당수가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다. 미술품 경매에서 한점에 수억원에 거래되는 블루칩 작가는 '만 나라 이야기'다. "작품을 판매한 적이 없어 내 그림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한 작가의 넋두리는 이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살이 넘어서도 '화려한 싱글'을 고수하는 작가들이 많다. 게다가 일부 젊은 작가들은 본인인 화가 이외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기도 한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의 28.7%는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실적은 건강보험의 경우 98.2%였지만 국민연금 52.0%, 산재보험 33.8%, 고용보험 33.3%에 머물렀다. 예술인이 걸으려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대부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주를 방문해 연극 '무어별(無語別)'을 관람했다. 문광부장관의 연극 관람이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이번 유 장관의 나주행이 화제를 모은 것은 한 연극인의 편지 때문이었다. '무어별'을 무대에 올린 나주전통예술극단 '예인방' 대표 김진호씨가 문광부 홈페이지에 '지역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과 애환을 가까이서 보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간곡한 글을 올린 것이다. 공연 뒤 유 장관은 "지역 연극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연극인들이 좋은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삶과 예술의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예술인들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예술을 공적 영역으로 인정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이번 유 장관의 나주방문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말아야 할 이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6대 광역시·제주도 연극의 진수 맛본다

18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광주 극단 '얼·아리' 등 교류전 열어

2009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연극 교류전이 12~1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최하는 이번 교류전은 각 지역 연극협회의 추천을 받은 극단들이 참여한다. 6개 광역시 교류 행사는 매년 각 지역에서 한 장르씩 집중 공연하는 행사로 2010년에는 광주에서 국악 관련 무대가 열릴 예정이다.

12일 첫무대에 서는 대구 극단 '예전'은 이근삼 작 '향교 품바'를 공연한다. 명퇴한 50대 초반의 학자가 넓은 향교에서 살고 있는 거지를 만나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극단 '얼·아리'는 '그들의 사회화 2009'를 선보인다. 양태훈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운명과 자유의지를 그린 연극이다.

16일 공연되는 울산 극단 '광대'의 '별사와 수녀'는 찰스 쇼 원작으로 대하로에 오랫동안 공연됐던 작품이다. 전통중 표류돼 무인도에 상륙한 미군병사와 일본군이 우연히 수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연극으로 삶과 죽음, 좌절과 희망 등을 담고 있다.



극단 '예전'의 '향교 품바'

제주도 극단 '가람'(17일)과 인천 극단 '집현'(18일)은 마당극을 준비했다. 가람의 '행파'는 '심정전'의 조역인 행덕어미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으로 중간에 악극의 묘미를 살려 노래를 부른다.

'집현'의 '배비장전'은 온갖 바람둥이 배비장이 제주 기생 아랑에게 빠져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티켓 1만원 5천원, 중고생 1만원, 한혈증 기준 시 무료. 마이비 교통카드 결제 시 30%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유리코 광주 공연

내일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 녹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한국 드라마와 CF 삽입곡으로 유명한 일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유리코가 광주에 온다.

나카무라 유리코는 광주 MBC '문화콘서트 난장' 프로그램 녹화를 겸한 공연을 13일 오후 7시 광주MBC 공개홀에서 갖는다.

지난 6월 호암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졌던 나카무라 유리코는 이날 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뿐 아니라 한국 가요를 그녀의 감성으로 편곡한 곡들도 들려준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그룹 '노 브레인' 출신으로 영화 '고고 70'에도 출연했던 기타리스트 차승우가 이끄는 '문 사이너스'와 호주 출신 11인조 재즈 밴드 '스카즈'가 함께 출연한다.

이날 녹화분은 오는 26일 밤 11시5분 광주 MBC를 통해서 방영된다. 티켓은 13일 오후 3시부터 광주 MBC 공개홀에



나카무라 유리코

서 선착순 배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메가박스

1관	내사랑 내결에 (124)	최고급관
2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3관	게이머 (18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애자 (154)	
5관	호우시절 (124)	
6관	패인 (124) / 내사랑 내결에 (124)	
7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8관	써로게이트 (154)	
9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예프유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원외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국가대표 (124)	
2관	애자 (15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관	패인 (124)	
6관	게이머 (18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8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9관	써로게이트 (154)	
10관	내사랑 내결에 (124)	

원도사람 영화사람 • 메: www.joycn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대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옆)



1588-7941 상무병원대 매남 -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써로게이트 (154)	
2관	애자 (154)	
3관	패인 (124) / 정승필 실종사건 (154)	
4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5관	국가대표 (12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6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 호우시절 (124)	
8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 게이머 (184)	
9관	호우시절 (124)	
10관	내사랑 내결에 (124)	

• 5000여대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동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80 • 하이 당구장



고려사람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문 하미스포텍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내사랑 내결에 (124)	
2관	써로게이트 (154)	
3관	호우시절 (124)	
4관	애자 (154) / 패인 (124)	
5관	게이머 (184) /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6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7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호우시절 (124)	
2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4관	내사랑 내결에 (124)	
5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6관	게이머 (184) / 국가대표 (12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초년역주차장) 단, 입점점 구역 고객에 한함



세무소 기점 • 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 •
충무로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 ♥